† 마태복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원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태복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

성경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습니다.

◉

'나는 안다'는 것을
경계합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되면 칼날과 비칼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잘 알지 못해도

신 윤 식

따스한 세월이 다가오니
햇살은 환한 빛 되어
어두운 마음에 스며드는 향연으로 펼쳐지고
저 하늘의 흰 구름도
푸근함으로 다가와 영혼을 감싸주듯
내게 들어와 어느새 물결 되어
마음을 흔드는 당신을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염없이 베푸는 당신을
나는 잘 알지 못해도
내리는 빗줄기에
목마름을 해소하는 나무처럼
눈부신 태양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풀잎처럼
쏟아지는 은혜에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는 목소리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발 행 인 신윤식 목사
발 행 일 2011.3.6
발행호수 제19권 10호

주일오전설교
마 20:17-28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역사일 수 없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사건으로 멈추고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천년이 넘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서 단지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면만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기 보다는 관념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역사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오셨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과거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단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같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말하되 자기 홀로 살지만 매일 같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림과 간섭으로 바라볼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뜻보다는 주의 뜻을 묻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들통 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으로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신 그 이유부터가 세상이 갖고 있는 코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은 자신들과는 전혀 맞지 않고 다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어떤 꿍꿍이속으로 하나님을 찾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 뿐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고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현실을 사는 신자는 자신의 속셈이 들통 나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항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뿐이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본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18,19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첫 번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만류했고, 두 번째는 근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없이 다만 천국에서의 자리 문제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해 분노하는 것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두한 채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으심의 길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천국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상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속성의 충돌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아들들을 앞세우고 예

수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각각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도 아들로서의 대우와 공경은커녕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으셔야 하는 비참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세계는 아예 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서글픈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친은 자신의 아들들이 잘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자식을 둔 여자라면 이 모친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자기 자식이 잘되는 문제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자에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욕망이고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욕망은 남자보다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자식은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고통을 수반한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에서"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친이 말한 주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주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워지는 유대 민족이 중심이 된 새롭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모친 역시 그런 주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의 아들 둘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력한 나라에서 주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 둘을 자신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자가 교회로 모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신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자리다툼과 경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로 여기는 장로가 되기 위해 다투고 경쟁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세계인가를 전혀 알지 못할뿐더러 아예 관심도 없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답하십니다. 이들은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연관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 즉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내 잔' 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는 다릅니다. 만약 같은 잔이라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받으신 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을 받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장차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하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장차 마시게 될 잔은 예수님이 주시는 잔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구원이라는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은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은총의 세계, 주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사항임을 말씀합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얘기는 제자들 가운데 좌우편에 앉을 자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주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그 모친은 세상의 일상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친에게는 자신의 두 아들이 가장 잘나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난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 못난 자는 그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세상의 일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잔을 마심으로 이뤄지는 주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일상적 질서에 따라 통치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남과 못남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고 낮음의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큰 자고, 모두가 으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을 앞세운 모친의 요구를 들은 다른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모든 제자가 죽으심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고 오직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 눈을 뜨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는 말씀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질서로 구축된 것이 주의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세계,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예수께서 도리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귀한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모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큰 사람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망각한 채,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정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무시한 채 무작정 '섬기자'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섬김은 가능하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인간은 섬김을 실천한다는 자기 행동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는 속성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에게 섬김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신자 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의 세계가 어떤 방식의 나라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섬김이 능력이며 힘이고 크고 으뜸이 되는 자로 여김 받는 곳임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것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아래에서 해체되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지금 모임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신자는 세상의 질서인 힘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섬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자신을 생명에 있게 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섬김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섬기라는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오후설교
갈 5:22-23

성령의 열매

(성령 8강 2.20일 설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신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맺어야 할 열매로 생각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아홉 가지의 항복을 신자가 하나하나 실천하기를 힘씀으로써 나타내어야 할 열매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을 때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신자가 힘써서 맺어야 할 결과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도가 말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입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를 각각 분리해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다음에는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아홉가지 열매를 모두 완성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힘써서 맺으라는 의도로 말했을까요? 물론 사랑을 실천하고자 의도하고 힘을 쓰면 사랑으로 보이는 외적인 흔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희락이나 화평의 흔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희락이고 화평이지만 어쨌든 힘쓰지 않을 때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흔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랑이라는 열매의 흔적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희락이 가능하고, 사랑과 희락의 흔적을 동시에 계속 지속시키면서 화평이 가

능하고, 그런 식으로 여덟 가지의 흔적을 동시에 지속시키면서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홉 가지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력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도가 말한 아홉 가지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령이 오신 이유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면,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강한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죄부터 깨끗하게 척결을 해야 합니다. 욕망을 척결해야 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음란과 수군수군 대며 남을 비방하는 그 모든 속성부터 척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열매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는 인간의 속성이 강한 세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사랑이든 화평이든 희락이든 그 어떤 열매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신자라고 해서 인간의 악한 속성들이 단 하나라도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실천해서 나타내야 할 외적인 결과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크나큰 혼란과 오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과연 성령 받은 신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단지 듣기 좋은 교훈적인 말로 제시될 뿐이고 신자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그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다스리시고 주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께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 16:7,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책망을 받음으로써 신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고 의가 없는 사람이며 심판에 해당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런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실 때 사람들은 의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의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자기 존재성을 알게 되고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왜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이 죽고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정욕과 탐심을 자신이 죄의 형벌인 죽임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로 보게 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내 놓을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 있는 속성입니다.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자기 의를 구축하고, 자기 의를 앞세우며, 자신의 의로 높아짐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인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항목 하나하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께 있는 속성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이고, 이것은 희락의 속성이라는 식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 희락, 화평, 등등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공공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검표에 기재된 항목 하나하나에 표시를 하는 것처럼 사랑이 나타나는지 희락이 나타나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매는 그처럼 하나하나 분리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주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한 신자는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신 은혜의 결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신의 행함이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자신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은혜의 결과물로 내어 놓으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며 곧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살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있는가? 입니다. 예수의 사람에게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고 자기 부인이 있는 신자로 행하는 모든 것이 곧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설교

슥 1:7-21

환상(1)

(2강 2.23일 설교)

사람들은 편한 세상을 원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나 주변 환경이나 형편 모든 것이 자기 육체를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구축되기를 열망합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언제나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편한 세상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편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부터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분에 넘치는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심으로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인생의 맛이 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만난다고 해도 그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의 환상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10절). 이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본 결과는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11절). 평온하고 조용한 세상이야 말로 온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유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평온하고 조용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스가랴는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칠십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의 유다는 조용하고 평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평온하고 조용한 삶을 누리게 하시면서 유다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칠십 년을 고생했는데 언제까지 그들의 고생이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천사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15-1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일한 열국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여 번성하고 풍부한 곳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일한 열국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긍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신자와 기존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만을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은 무조건 아무 일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인생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도 인생에 닥칠 수 있는 모든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든 세월이 빨리 끝나기만 바랍니다. 인생은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하면서 즐거운 세월이 주어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일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 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본 세상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용하고 평온한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안일한 열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온하고 조용해서 게으르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함과 평온함에 파 묻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 관심이 없고 구하지도 하는 것을 안일한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관심을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도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곧 안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복 있는 자입니까?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복을 추구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것도 복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인생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심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징벌도 아닙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 관심이 없던 안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추구하는 것들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고통으로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3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고 말씀하시는 것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백성으로 나올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 된 자가 추구하고 신뢰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누구나 원하지만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복은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 되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이 힘들다고 해도 그 힘듦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게 하며,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시기 위한 사랑이고 자비라는 것을 깨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크나큰 유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일하지 않은 삶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4개의 뿔이 보인 두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네 명을 보이시는데 그들은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온 자들입니다. 즉 안일한 열국을 심판하기 위한 대장장이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들이 세상을 깨뜨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이 배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평온하다고 해서 안일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께 두게 하는데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러한 신자로 세우시기 위해 영을 보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곧 새로운 세상을 사는 새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새로운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4장
교　　독 : 48(시106)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13장
성　　경 : 마 20:17-28
말　　씀 : 인자가 온 것은(12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4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5장
기　　도 : 박철현 집사
찬　　송 : 453장
성　　경 : 엡 5:18
말　　씀 : 성령 충만(성령 1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9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4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있습니다.
2. 오후 예배 후에 예배당 대청소 합니다.
3. 구역이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이영민 장로 오후 유오자 집사

귀한 일

이 세상에는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며 돕고 구제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와 사치와 성공을 누리는 것에만
인생의 모든 목표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 하려는 일이다.

그 보다 더 귀한 일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 하려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귀한 일을 보이는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진리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며 그저 제 갈 길로만 가는 것이다.